해외교구 사무처 가동…“현지·종단간 괴리 좁힐 것”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교구장 정우 스님, 8월 24일
부 교구장에 정범 스님 임명
8월25일부터 美동부 교류도

사무처, 해외교류 창구이자
해외관련 종단행정 매개로
“산적한 과제들 해결 첫 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가 공식 개소를 알리고 가동을 시작했다.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부교구장에 조계종 前 해외특보 정범 스님을 임명한 데 이어, 8월 25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美동부해외지회(지회장 지광)를 방문하는 등 현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첫 국내 사무처가 설치된 만큼, 향후 해외포교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8월 26일 국내 사무처의 공식 개소를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구장 정우 스님이 8월 25일 美동부지역으로 출국함에 따라, 부교구장 정범 스님이 주관했다. 정우 스님은 출국 하루 전인 8월 24일 정범 스님에게 부교구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향후 국내 사무처 운영방향 및 활동에 대한 실무총괄 소임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교구장 정범 스님은 “조계종 해외교구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지난 2017년 해외교구 국내 사무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면서 법이 개정됐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총본부로서 국내 사무소가 개소됐다”며 “앞으로 사무처는 해외거주승과 유학승, 해외사찰 등 현지와 종단을 이을 교류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잘 듣고 모아내 해외 관련 업무 역량을 결집,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올해 종단 집행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가 해외포교 활성화인 만큼, 교구장 정우 스님을 잘 보필해 유의미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산적한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해외사찰과 종단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특별교구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해외사찰이 직면한 상황과 종단 종무행정간


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 정범 스님.

괴리감에 따른 현지 스님들의 고충은 물론, 냉담현상까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범 스님은 “해외사찰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종단적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교류를 통한 실태 파악으로 괴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국내 사무처 설치로 상시 교류 창구가 마련된 만큼, 현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사찰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해외지회와 권역별 연락사무소 활성화 등을 순차적으로 이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관련 종무행정이 종단 각 부서로 분산돼 있는 만큼, 해외사찰과 스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행정 단일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부서간 협의를 통해 국내 사무처를 해외 관련 업무의 단일창구로서 안착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윤영희 사회부 차장은 “사회부 국제팀이 해외사찰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외거주승 관련 업무와 사찰의 종단 등록, 교육 등에 대한 실무는 총무부를 비롯한 각 부서로 분산돼 있어 현지 스님들의 고충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국내 사무처는 해외 관련 종무행정을 단일창구로 지원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무처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종단 해외포교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도 모이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조계종 해외포교는 스님 개개인의 역량과 원력에 의존해 왔지만, 스님의 부재 시 노하우가 단절되거나 경우에 따라 교민사회와의 갈등이 양산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교구 국내 사무처 업무의 핵심은 현지사찰과 포교 일선에 나선 스님들이 종단의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잘 안착해, 종단의 해외포교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원력과 자발성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정범 스님은 “해외사찰의 종단적 정체성과 결속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외사찰의 원력에 부응하는 종단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해외사찰의 특수성에 대한 종단 차원의 이해를 넓히고 종단 시스템과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국내 사무처는 향후 해외 현지와의 원활한 소통,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토대로 해결이 시급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포교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원력을 갖고 계신 교구장 정우 스님께서 이번 미국 방문일정에서 직접 美동부지회 소속 사찰들을 탐방하고 현지 스님들과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임시이사회 파행…8건 중 1건 처리

8월 20일 6차 임시이사회 개최
논쟁 3시간…안건 대부분 이월
내부갈등 악화가 이사 양분화로
‘정상화’명분 두고 입장차 확인
지자체 방관…“타개책 마련”요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시설 운영진과 제보직원들간 내부갈등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임시이사회가 이를 봉합하기는커녕 되레 양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임시이사회 권한의 한계가 안건 논의과정에서 매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관할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시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관하는 모양새다. 타개책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이사 사임의 건과 정식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제출됐지만, 이사들 간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차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8월 20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개최 전부터 이사 사임과 선임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에 어떤 형태로든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추측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이날 임시이사회는 기타 안건을 포함한 8개 안건 중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안건 1개만을 처리한 채 모두 차기로 이월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가량 열띤 논쟁과 논의가 이어졌지만, 안건 상정도 2건밖에 이뤄지지 못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법인·시설·역사관 1차 추경예산안 △감사임기만료에 따른 감사선임의 건 △수당 및 미지급금 관련의 건 △통합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 사임의 건 △정식이사 선임의 건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안 심의 △기타 등으로 확인됐다.

임시이사회는 추경예산안과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을 잇따라 상정해 논의했지만 추경예산안은 논의 끝에 차기로 이월됐다. 감사 임기만료의 건은 기존 감사 1명의 연임, 1명은 단수 추천해 결정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8개 안건 중 1건만을 제대로 논의한 셈이다.

지난 4월 21일 열린 임시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문제도 재차 지적됐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회 7일 이전에 소집통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감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지적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예산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예산안의 무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통보기간 부족은 주요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과 나눔의집이 사고법인인 만큼 원칙에 따라 무효화 후 재상정해 의결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이 격화됐고 일부 이사가 해당 문제를 지적한 감사를 향해 신뢰성을 문제삼는 발언을 해 감사가 퇴장하는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김민성 감사는 퇴장 후 “광주시 추천 감사로서 중립적으로 일해 왔으나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임시이사회가 나눔의집 정상화를 목적으로 가동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는 커녕 되레 내부갈등만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조속한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기존 이사들의 경기도 해임명령 무효소송의 결과가 판가름날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차기 임시이사회가 9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지지부진한 나눔의집 정상화에 타개책이 될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광주=송지희 기자

마애부처님 입불 위한 전문 특보 임명

원행 스님, 8월24일 임명장
김유식 연구관·진병길 원장
“성보 가치·기술안 등 자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김유식 문체부 학예연구관과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을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관련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사진〉 이는 입불 불사를 향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특보단의 자문을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키 위한 조치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는 총무원 문화부를 소관부서로,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와 제11교구본사 불국사의 의견을 모아 진행된다. 김유식 연구관과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등 새롭게 임명된 특보단은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와 함께 입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비롯해 문화재청, 경주시청 등 소관부서들간의 협의와 정책업무 등을 지원·자문한다.

이를 통해 입불 불사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보다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입불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마애불입불정진단과 성지순례단 운영 등에 따른 협조도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손상 없이 유지돼 온 것은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손상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지 않아 입불을 염두에 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제 1353호 1면 사진기사의 봉은사 주지 ‘원경 스님’은 ‘원명 스님’의 오기로 바로잡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